

함글함글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 롬 10:15 고전 9:16 행 1:8
2022년 주님의교회 표어



447
2022.2.13.

오늘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_ 에베소서 5:15-16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
|-----|----------|-----|-----------------|-------|----------|
| 2 | 책속의 명문장 | 6-7 | 신춘문에 당선작 | 9 | 찬양대 찬양일기 |
| 4-5 | 기독교공보 특집 | 8 | 신춘문에 당선소감 / 심사평 | 10-11 | 영화로 성경읽기 |



깨어짐

시골집에서 얻어온 청란 3개를 부화기에 넣었더니 그중 두 마리가 부화했습니다.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따뜻한 온기를 품은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나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을 보니 깨어짐이란 말이 생각납니다. 성숙하지 않은 알이 깨지면 그 생명은 죽지만 어느 정도 성숙하면 그 알을 깨고 나와야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생명되신 주님도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 내 삶으로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함글함글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

누구나 좋은 교회를 만나고 싶고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지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담장을 넘어 사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진정으로 좋은 교회는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방황하는 영혼을 치유하는 교회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성도들이 모든 교회를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라고 한다. 선교적 교회, 혹은 미셔널 처치라고 부르는 신생어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심지어 많은 목회자 가운데에도 선교적 교회하면 해외 선교나 국내 선교를 더 많이 하는 교회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교적 교회란, 성도들의 생각을 전환시켜서 모든 성도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구속적 삶을 살아가게 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고 목회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즉, 교회의 DNA가 바뀌어야 하고, 성도는 주일 예배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 삶의 처소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선교적 삶을 살도록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할수록 엄청난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탈기독교 사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하며 시작한 운동이 바로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 운동이다. 선교적 교회 운동은 선교를 더 많이 하자는 운동이 아니다. 엄격히 말해서 선교적 교회 운동은 교회의 본질을 재검토하고 새롭게 하자는 것이다. 선교와 교회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출발점 자체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즉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시어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동참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선교이며, 교회를 위해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교회의 본질을 새롭게 이해하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 운동은 해외 선교나 국내 선교를 더 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교회의 본질을 묻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는 죄로 가득 찬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신실한 제자들의 공동체다. 건강한 교회는 잘 모이고, 모여서 얻은 힘으로 잘 흩어져 세상의 참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파송(보내심)이란 단어는 더 이상 특별한 사명을 받은 특정 인물에게만(선교사) 해당하는 단어가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해당하며, 온 성도가 각자 세워주신 자리에서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반드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적 의지로 연결되어야 하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음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시기 위해 피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셨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인정하는 복된 소식이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는 성도는(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실재를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현장(market places)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실재, 즉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통해 드러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야 한다.

선교 지향적 교회(mission-minded church)의 선교를 대리적 선교라고 본다면,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의 선교는 참여적 선교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선교적 교회는 헌신된 자를 파송하고 온

성도가 후방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세상으로 파송을 받아 선교적 삶을 살도록 훈련하고 돕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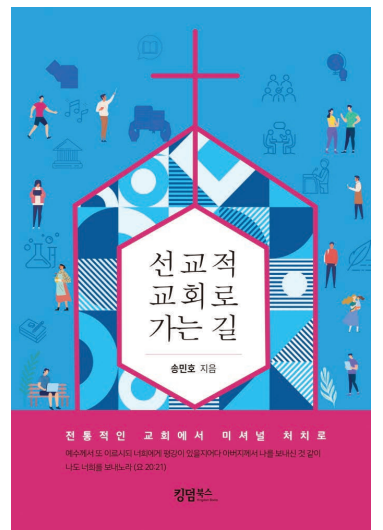
구속적 삶을 산다는 것은 화해를 통한 회복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환대의 삶을 통해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며, 섬김을 통해 복음의 진성성을 나타내는 삶을 말한다. 환대(hospitality)는 조건 없는 대접이다. 구속적 삶을 사는 성도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며 환대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선교적 교회를 이루는 첫 번째 요소는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선교적 교회로 가기를 희망하는 믿음 공동체라면 먼저 성령께서 그 공동체의 앞길을 전적으로 주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한다. 급변하는 세상의 가치를 복음적 관점에서 예리하게 분석하여 온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도와야 한다. 즉, 각자 세워주신 자리에서 구속적 삶(화해, 환대, 섬김)을 살도록 돕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 타락한 인간과 죄로 물든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겸손히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에 동참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긴다. 교회는 변해야 한다. 복음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대상과 그 환경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음 전달자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복음 전달 방법이 시대적으로 맞는지 잘 살펴야 한다.

성도들은 세상과 단절된 고립된 생활을 하거나, 세상과 동화되어 무분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며 의미 있는 개입을 통해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자비와 환대를 베푸는 선교적 삶을 말하고,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적 교회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주님의 성품을 매일 닦아가면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구속적 삶을 살게 된다. 개인적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된다. 주님께서 세워 주신 가정, 일터, 이웃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자비를 드러내며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한다.



송민호, 킹덤북스, 2021

교회 소식

주님과함께 큐티책의 우편발송을 준비하며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며 인간의 힘으로 세워진 문명의 허무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안전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과 원수들의 공격은 언제나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일용할 보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를 흩어놓으신 지금, 어쩌면 그동안 소홀히 해왔을 수도 있는 개인 말씀 묵상의 시간을 회복함으로써 이 시간이 오히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 실제로 주님의교회는 현장에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과함께 큐티책의 발행 부수는 더 늘었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미 개인 경건생활이나 말씀 묵상을 잘 하고 계시는 주님의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특별히 우편발송 전용 큐티책 정기구독을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이 매달 함께 모여서 큐티책의 우편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과함께 큐티책의 발행을 준비하고 우편발송을 진행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말씀의 깊은 곳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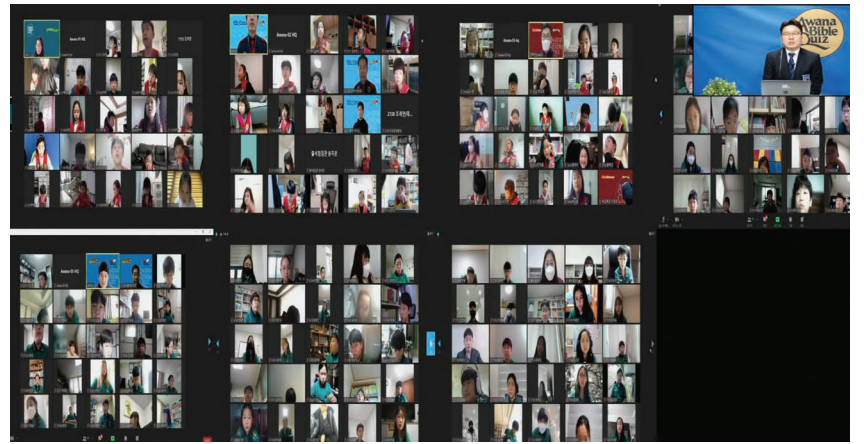


아무리 심각한 재난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의교회가 이 어려움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일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갑시다. 오늘도 주님과함께 건강한 말씀 묵상과 복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시영 목사

교회 소식

어와나 온라인 성경퀴즈대회



2022년 1월 22일 어와나 서울지역 성경퀴즈대회가 열렸다. 코로나로 인해 올해도 작년과 같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주님의교회 스팅스(7~9세) 총 14명, 티앤티(10~13세) 16명의 친구들이 참가했다.

스팡스에서는 7세 과정(행글라이더)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8세 과정(윙러너) 은메달 1개, 9세 과정(스카이스터머)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수상했다. 티앤티는 10세 과정(어드벤처1)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11세 과정(어드벤처2) 금메달 4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 12세 과정(챌린지1) 금메달 1개, 13세 과정(챌린지2)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수상했다.

또한 좌호경, 정세은, 장윤하 친구는 티앤티 과정 4권의 책을 한번에 암송하는 멀티플 북습상을 수상하며 한국어와나 본부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되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행사에 참여해준 친구들과 가정에서 지도해준 학부모님들 코치로 참여하신 선생님들에게도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함줄함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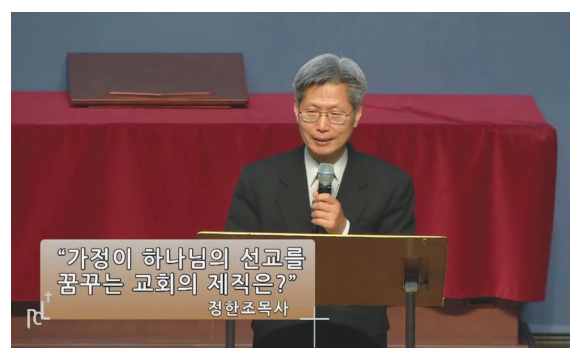
교회 소식

제직수련회

2022년 1월 23일 주일 오후 4시에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제직수련회가 있었다. 배익환 서기장로의 제직부서 소개 후에 100주년기념교회 담임이신 정한조 목사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가정이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교회의 제직은?”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정한조 목사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어가므로 제직은 교회를 세울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사람이라며 맡겨진 자리에서 어떤 섬김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가정이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교회의 제직은 교회를 확대된 가족으로 여기고, 다니엘처럼 다른 결심을 하여야 하며, 말씀으로 자기를 가꾸어 가고 눈물을 뿌리는 기도의 자리를 가져야 한다. 또한 교우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고 헌신과 충성과 봉사의 태도를 갖고 자기 자신을 최고의 선물로 드려야 한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2022년 맡겨진 자리를 충성되어 감당하는 제직이 되길 소망한다.

함줄함울



한국기독교공보 특집
2022년에 바란다 - 교육

다음세대에 대한 교육투자가 교회의 미래

<함글함글>에서는 교단 기관지 <한국기독교공보>의 1월 특집기사인 '2022년에 바란다'의 5개 주제(목회, 신학, 선교, 봉사, 교육) 중 신학과 교육의 특집 기사를 전제한다. 교단 기관지인 <한국기독교공보> (2022.2.7.)에 아동세대의 헌법해석에 관한 사설이 수록되어 전문을 인용합니다. 함글함글

WHO에서 코로나를 쓰나미라고 표현했다.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쓰나미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의 피해가 가장 큰 곳은 다음세대라고 할 수 있다. 성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습득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의해 살아왔기 때문에 회복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 반면 오늘날에 성장하고 있는 세대는 학교에서 무신론적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이나 세계관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되지 않을 때 신앙을 가지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위기상황을 제대로 대처하고 있을까? 아이들이 떠나가거나,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는 이유를 코로나로 핑계 삼고 두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을까? 코로나는 앞으로 1~2년간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미래는 매우 암담하게 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더구나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과거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의 삶의 정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적절한 신앙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가장 먼저, 2022년에도 모이는 것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인 교육이 더 활발하게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모든 교회가 공감하고 있고, 총회와 앞서는 교회는 온라인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온라인 콘텐츠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총회교육부는 청소년 수련회를 한일장신대를 비롯한 신학대학들과 협력하여 이미 2년 전부터 온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온라인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지도자나 교회 시스템의 미흡함으로 인해 제대로 교육되지 않는 곳도 많기 때문에 2022년에는 지도자교육과 시스템을 보완하는 일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많은 교회들이 대면으로 행해지던 예배나 교육을 온라인으로 송출하면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교육은 대면교육과는 달리 많은 제한점들이 있다. 온라인교육은 대면교육보다 학습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온라인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면에서 치밀한 계획과 구성이 필요한데 교회의 현실을 감안할 때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예배나 교회교육이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흥미를 갖기 쉽지 않다.

또한 교회교육에서는 공동체의 소속감이나 서로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온라인에서는 소속감을 갖기 어렵고, 상호소통도 힘들다. 이처럼 온라인교육은 학습자들이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평가가 어렵고, 효과도 미미한 경우도 많다. 더구나 다음세대는 자신이 참여하지 않으면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비대면교육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총회교육부는 물론 총회 산하 신학대학교 그리고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교회들이나 기독교교육기관들이 힘을 합해 스스로 참여하고 싶도록 만드는 재미있고, 질 높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방법론적인 문제보다 사실 더 중요하고, 당면한 문제는 신앙교육의 내용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필자는 유치원에서 하는 박물관 탐방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다. 박물관에는 인류의 진화 과정이 두개골과 모형으로 제시되고, 화석발굴 과정이나 블랙홀을 체험하면서 우주의 생성과 인류의 진화에 대한 과학적 교육이 제시되었다. 3살 때부터 무신론적 진화론이나 세계관에 입각한 과학교육을 받으며 자라나는 다음세대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대체로 동화적으로 가르쳐 왔는데, 아동기를 넘어서면 동화는 설득력을 잃게 되고, 청소년기에 이르게 되면 동화의 세계를 버리듯이 신화와 같은 신앙의 세계도 버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은 청년층의 이탈이나 대학에서의 선교단체의 실패, 비기독교인의 자녀들이 전도되지 않는 현상 등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따라서 그동안 교회가 해왔던 것과 같이 성경을 옹호하기 위해 과학적 이론들을 무조건 부정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보다는 과학이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방법에 대한 연구임을 깨닫게 하고, 진화나 과학의 한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주어야 한다. 이런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에 회피하게 되는데, 피나는 노력없이 다음세대의 이탈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다행히 온신학아카데미를 비롯한 몇몇 의식있는 기관들이 무신론적 진화론의 오류와 한계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고, 무신론을 극복할 수 있는 창조에 대한 과학적 논증들을 저서와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과 연대해서 교육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교회교육에 대한 2022년의 바람을 제시해보았지만, 이런 문제를 개교회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총회나 노회가 지원체계를 만들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도와주고, 교육내용이나 방법에서도 수준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공유하고, 지도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교회에서는 개교회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총회교육부나 다른 교육기관들과 연대하여 교육내용이나 방법에서 수준을 높여야 하고, 내적으로 교회교육부서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과거 IMF가 터져서 교회 예산이 줄어들었을 때, 많은 교회들이 교육부서의 지도자를 줄이거나 지원을 삭감하는 일을 했고, 그 결과는 바로 교육부서의 약화와 감소로 이어졌던 뼈아픈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 다음세대에 대한 교육이나 관심, 투자가 교회의 미래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박화경 교수(전 한일장신대 기독교교육학 교수)



한국기독교공보
2022년에 바란다 - 신학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늘 그렇게 생각해 왔다. 나 자신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신학과 목회자로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문제에 대한 '답'이라고! 그렇다면 그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기독교 신학은 오늘 우리가 당면하는 시대적 위기에 대한 '답'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물론 그 답은 모든 세부 분야에 대한 정확한 답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우리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원칙과 방향성, 그리고 가치관을 제시하는 대답이어야 할 것이다.

2022년을 맞이하면서 기독교 신학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응답해야 하는 도전 앞에 서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우울함과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서 기독교가 제시하는 '희망'의 본질을 어떻게 구체화해야 하는가? 무종교로 치닫는 한국 사회 속에서 기독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길은 무엇인가? 인공지능 AI가 고도로 발전하는 정보 기술 사회 속에서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진정한 '인간됨'의 의미를 어떻게 보여줘야 할 것인가? 75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적대적인 남북한의 분단을 극복하는 '화해와 용서'의 길을 어떻게 제시해야 할 것인가? 현실 한국교회에 냉담한 마음을 품은 젊은이들에게 들려줘야 할 인생을 위한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 과학과 종교의 충돌에서 신학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올해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와 교회의 관계를 가늠하는 잣대는 무엇인가?

기독교 신학은 방법론적으로 두 개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 하나는 '이성의 문'이며, 다른 하나는 '신비의 문'이다. 신학을 통해 땅과 하늘의 세계가 조화를 이루며, 지성과 계시가 함께 만나야 한다. 그래야 하늘의 신비를 붙잡는 동시에 땅에 두 발을 딛는 생동감 넘치는 신학이 창출될 수 있다.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금의 신학은 종교학에 머물고 있지 않느냐 자성해 본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신학의 고유한 특징인 2인칭적인 고백을 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아탑에 머물면서 3인칭적인 진술과 지식 정보 제공으로만 신학의 역할이 축소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땅에 혁명적인 충격을 가져오신 예수와 달리 인간과 세상을 향해 도전하고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신학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독교 신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첫째, 신학은 다시 철저하게 실천적인 학문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신학자는 사도 바울이었다. 바울이 쓴 로마서와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등은 당대 교회 성도들이 직면한 사회 현장 속에서 출현하였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고뇌하고 갈등하며 절망하고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구체적인 응답임을 선언하였다. 신학의 범주가 한 인간의 실존과 공동체의 정체성, 가정과 이웃과의 인간관계, 사회적 갈등과 거대한 권력과의 관계, 그리고 우주적인 영역까지 확장되는 것임을 각인시켰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학도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장 속의 이야기를 담아냄으로써 실천적인 대답을 주어야 한다.

둘째, 신학은 융합하는 학문이어야 한다. 때로 성서학은 교의학을 모르고, 교의학은 성서학을 외면하는 무지와 안일함을 극복해야 한다. 성서학과 교의학이 상아탑에 갇힌 사변적 학문으로 몰락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서로 다른 분야의 학자와 신학도들이 우리가 당면

한 문제들에 대한 대답으로써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함께 들려줘야 한다. 예수의 복음을 기독교적인 언어로 제한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며 끊임없이 소통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신학은 인문사회학적인 시야를 아울러야 한다. 일찍이 칼뱅은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간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라고 한다면, 신학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성찰인 것이다. 그렇기에 신학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인문 사회학적 논의와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장 고뇌하며 사랑하신 대상이 바로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넷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인정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인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영적인 혁명을 경험한다. 그래서 신앙인은 그리스도에 종속된 '작은 그리스도'(마틴 루터)가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할 엄연한 당위성을 가진다. 따라서 신학은 신앙인이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자신이 속한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오늘의 위기적 상황과 문제를 신학화하는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탁월성은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실존적인 위기와 극도로 힘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침투와 인도하심을 느끼고 체화했다는 데에 있다. 그들은 그 어떤 상황과 주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물을 해석할 줄 아는 눈을 가졌다. 이것이 그들의 지혜신학이었고, 영성이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시며, 인간을 용서하고 회복하시는 구원의 주시며, 시간을 이끄시는 역사의 주시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이 땅의 문제에 '대답' 자체로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다.

여섯째, 신학은 세상과 현장 속에서 분투하고 있는 교회와 더욱 진솔한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교회가 신학의 고뇌를 품고, 동시에 신학이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고 섬길 때에야 이 시대에 신학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명을 더욱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 신학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소통해왔던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신학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그 기억을 새롭게 창출하는 신학이 되어야 하는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그래서 옛 시대를 걸어차고 다가오는 새로운 시간을 선포하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는 예수님의 공생애 첫 메시지는 지금도 계속 유효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보루인 신학교에 이런 신학적 변혁이 일어나길 바라며 소망을 품는다. **김지철** 목사(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만남의 재구성

일상 속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선교

비대면(非對面)의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온라인쇼핑, 온라인뱅킹, 온라인 강의, 원격의료 등, 상대를 직접 마주하거나 접촉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IT 기술의 발달로 비대면의 행동 양식은 서서히 일상 속으로 침투하여 새로운 삶의 표준으로 자리잡아 가는 듯 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직접 만나 같이 만져보고 확인하는 것을 선호하기에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비대면으로 무엇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았고 부러 외면해 왔었다. 온라인이다 원격대화다 하며 한창 떠들어도 지금까지의 삶의 관성에 사람의 관습은 쉬이 바뀌지 않았고 많은 부분 우리 손에 익어 익숙한 방식들을 고수하며 살고 있었다. 거기에는 효율이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때로 밥그릇 싸움 같이 비쳐지기도 하는 각 이해 당사자간의 미묘한 세력 다툼도 있는 것 같았다. 변화를 주도하는 측과 현재를 고수하려는 측과의 암묵적 이해 충돌로 변화는 아주 일부에서만 서서히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다. ‘다수 국민의 편의와 안녕을 위한다’는 같은 워딩의 서로 다른 논리의 다툼은 점점 찾기 힘들어 보였다. 현재 삶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세력의 저항이 결코 만만치 않아 비대면이라는 삶의 방식이 생활의 중심까지 들어오기는 아직 요원해 보였던 때가 있었다.

그러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왔다. 개인의 선호, 논리와는 상관없이 비대면의 소통을 강요받는 시대가 왔다. 공공의 안녕과 공적 선을 위해 강압적으로 전개되는 뉴노멀의 시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해내야만 하는 시간을 지나고 있다. 언제가 될 지 아직도 캄캄하지만 이러한 강제가 해제되는 시간, 즉 AD(After Disease)의 시대가 되어도 BC(Before Coronavirus) 때의 삶의 방식으로 완전히 되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 좋은 삶은 일상의 구석 구석에 비대면의 삶의 방식이 더 넓고 깊게, 더 확고히 자리잡을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금까지 거부당해 왔던 방식, 예전에는 이게 될까 했던 것들을 해야만 하는 상황, 그런데 막상 해 보니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가치와 효율, 편의가 보이는 역설의 시간을 온몸으로 맞닥뜨리며 학습하고 있다.

교회 내의 여러 행사도 예외는 아니어서 예배는 이미 오래전에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구역모임인 겨자씨 모임도 주어진 정보통신 자원의 한도 내에서 비대면으로 시작한 지도 일 년을 훌쩍 넘겼다. 회사에서 컨퍼런스를 밥 먹듯이 해왔던 터라 개념 자체는 그리 낯설지 않았지만 교회 구역모임을 카톡으로 한다는 게 왠지 좀 어색했다. 그렇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이제 바야흐로 소유의 시대에서 접속의 시대로 바뀌려나 보다. 겨자씨 특방에 접속한다. 둔하고 무딘 엄지 둘을 부지런히, 쥐가 나도록 움직여야 한다. 조금만 늦어도 대화의 타이밍을 놓쳐 흐름에 뒤처지게 된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의 말씀. 갈릴리 바닷가 게네사렛 지방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이야기이다. 고기를 잡으러 밤새 애만 쓰다가 허탕치고 겨우 새벽녘에 돌아온 베드로. 물먹은 솜처럼 몸은 천 근 만 근, 이제 고단한 하루의 일을 정리하고 쉬려 한다. 그물을 손질하고 씻고 있는데 저 쪽에서 한 남자가 오더니 배 좀 잠깐 쓰자 하신다. 깊은 데로 한 번 더 가 보라는 말씀에 좀 당황했지만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다는 이야기이다. 살다 보면 왠지 잘 안 풀리는 날도 있듯이 아마 베드로가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날이 그런 날이었나 보다. 일진이 좋지 않음을 탓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려 했는지 모르겠다. 벌어도 시원치 않아 평소보다 피곤했던 하루, 오늘 하

루 따라주지 않는 운을 탓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제 막 쉬려는데 한 번 더 나가보라 한다. ‘바닷가에서 태어나 바다에서만 보낸 세월이 얼마인데, 바다에 대하여, 고기잡이에 대하여 뭘 안다고 한 번 더 해보자 하는가? 어이가 없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질문이 주어졌다. 베드로처럼, 나의 경험과 지식, 이성, 삶의 방식에 반하는, 말도 안 되는 것에 순종한 기억이 있는지, 그리하여 주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묻는다. 구역장의 질문에 카톡방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지난 주는 주로 여자 권사님, 집사님들이 대화를 주도했는데 오늘은 주로 남자 성도들이 이야기를 시작한다. 대화가 하나 둘 늘어나더니 화면은 빠른 속도로 스크롤업하고 있었다. 나도 뭔가 하나 써야 할 것 같은 심리적 압박이 왔다. 좀처럼 안 떠오르는 생각, 그래도 몇 마디 써야만 했다. 그래서 쓴 것이, “피곤해서 진짜 힘들었을텐데... 나 같은면 확 짜증부터 났을 꺼예요. 베드로는 대단하네요. 가란다고 가구요.”이어서 오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한답시고 톱을 이어갔다. “지금 저는 주와 함께 깊은 바다로 가는 중. 대박이 날 지 어떨지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냈다. 한 마디 했으니 내 할 바는 다 했다 안도하며 소파에 누워 바로 휴식 모드로 들어갔다. 비대면의 장점이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이고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교회에서 성도간에 전형적으로 하는 그런 말을 할 걸... 작은 후회가 밀려왔다. 괜히 다른 생각, 다른 말을 한답시고 말의 전체적인 뉘앙스가 네가티브하게 된 것 같았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서로 듣기 좋은 은혜로운 말만 쓰면 좋을 텐데, 난 왜 맨날 이렇게 삐딱 선을 탈까. 지워지지 않는 내 대화의 흔적이 노란색 바탕에 까만 글자의 눈동자들로 나를 찌려보고 있었다. ‘나눔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전혀 전형적이지 않은 나 같은 놈도 있어야 다양성과 풍성함을 확보할 수 있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한다. 스마트 폰을 통하여 발화되는 작은 화면과 더 작은 글씨, 보고 있지 않자 점점 눈이 침침해진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자기는 죄인이라 고백한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하며 그를 제자 삼고 사역의 길로 나선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 것’과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사이에서 잠시 혼란이 왔다. 무엇을 보았기에, 무슨 깨달음이 있었기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이 왔을까. 그것에 더하여 무엇이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고 인생 진로를 180도 바꾸게 했을까. 오늘의 말씀으로만 본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 속에서는 오늘의 사건이 왠지 억지스럽고 어색했다. 그냥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를 베드로가 뭘 얼마나 알았다고 서로의 깊은 교감도 없이 무조건 순종했다는 말인가. 상호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순종한다는 것이 가능하구나 한 걸까?

누가복음 1장부터 5장까지는 세례요한의 출생과, 예수의 탄생(nativity), 예수의 세례, 족보, 광야 시험,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그리고 오늘 베드로와의 만남이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베드로는 예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수 있었겠으나 대면(face-to-face)의 만남은 오늘이 처음이었다. 처음 만나 그물 한 번 더 던져 보라는 말과 우연히 잡힌 것일지도 모르는 물고기에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자신의 삶을 내어 놓는다는 것에 쉬 납득이 가지 않았다. ‘힘들었지, 한 번만 더 해봐. 너는 할 수 있어’상대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 다시 일어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위로의 말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다고 내 말을 들은 어떤 이가 누적된 인간적인

깊은 교감과 존경과 경외심 없이 한 마디 말에 자신의 인생 경로를 바꿀 것 같지는 않다. (물론 나와 예수님은 급이 다르지만...)

오늘 사건 자체만 볼 때, 베드로의 고백은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하는 뼈다박한 의문이 들었다. (아! 오호라 나는 분명 곤고한 사람인가 보다. 내 안에 있는 이 뼈다박선을 어찌란 말이나... 주여, 저를 붙잡히 여기소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 무엇이 더 필요했다. 그래야만 오늘 베드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 나를 돌아보며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여 나도 내 삶의 현장에서 베드로같이 흥내라도 내 볼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나에게 벌어진 수 없는 일, 베드로에게만 벌어지는 특수한 상황이라면 오늘 베드로의 사건은 예수와 나와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벌어진 것 같지 않은 이야기를 묵상하며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다. 나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특수한 공간적 현장 상황과 인식체계, 같은 이해와 해석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기 때문이다. 나는 베드로가 아니다. 생각은 갈피를 못 잡는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완벽한 시스템, 플랫폼을 만들어 놓았다. 생물, 물리학적 운동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과의 체계와 판단, 윤리, 선 등에 대한 인문학적 근거도 그 플랫폼 안에서 시스템적으로 온전하게 작동하게 되어 있다 생각했다. '창세로부터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진다'(롬 1:20)라는 바울의 말처럼 세상의 이치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안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 평소의 생각이었다. 뭔가 억지스럽고 어색하여 다른 특별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은 일반적 질서 안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무엇이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보기에 따라 최초 시스템 설계 시 오류가 있다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고안하신 플랫폼이 그럴 수 없다 생각하기에 질문의 꼬리는 길어져만 갔다. 혹자는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말씀을 더 보라 하는데, 묻고 따지기를 즐기는 자로 태어난 태생이 그런 걸 난들 어찌겠나...

"모든 문제는 해법이 있다.(Every problem has a solution.)"가끔 생각나는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필라델피아>의 대사 한 마디, 문제 풀이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자신을 북돋우며 주문처럼 되뇌이는 말이다. 분명 성경에 답이 있을 거라 기대했다. 게네사렛에서 베드로와 예수님과 만남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만남이었다는 전에 읽었던 책의 한 대목을 희미하게 기억해 내며 성경을 뒤졌다.

요한복음 1장 40절 이후의 말씀에서 나뭇의 실마리를 찾았다. 남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법한 이야기를 이제서야 알아간다는 것이 좀 한심스러웠지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배경을 서로 비교하며 그들의 만남을 재구성해 보았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 후 요단강가 베다니 지방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를 만난다. 안드레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게 되고,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한다. 안드레를 통하여, 당시 예수가 행하였던 여러 사역을 통하여, 그리고 직접 만나보며 베드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음에 분명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예수님은 베드로를 게바라 부른다. 그리고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헤어진 것 같았고 베드로는 일상으로 돌아가 갈릴리에서 다시 어부의 삶을 이어간다. 그리고 오늘, 갈릴리 게네사렛에서 예수님과 베드로는 다시 만난다. 그리고 그물을 던진다. 깊은 바다에서... 게네사렛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베드로, 아니 게바에게는 예사롭지 않았을게다. 예수님과 만남, 이루지

못한 다짐(?), 회한 등이 스멀스멀 올라오지는 않았을까. 깊은 데로의 동행, 지금까지 듣기만 했던 예수를 그는 보게 된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구역모임이 끝나고 혼자 앉아 카톡에 미쳐 다 못 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나에게 적용해 보며 생각을 정리한다. 지금 나는 주와 함께 깊은 바다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너무 멀리 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어떤 고기가 얼마나 잡힐지 아직 모른다. 어쩌면 너무 큰 고기를 잡아 되려 돌아올 때 문제가 되는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 온갖 생각이 들지만 그냥 킁킁 부여 잡는다. 옆에 계신 주님이 가리키는 방향에 온 마음을 쏟는다. 행여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정신 바짝차려야 한다. 손에 힘이 들어간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깊은 바다로 가라 했을까.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주려? 깊은 곳으로의 여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물고기였을까. 질문은 이어지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다. 방점은 주를 만나는 것, 다시 주를 바라보게 하는 것에 있었구나, 하는 나뭇의 깨달음이 왔다. 베드로가 애써 일부러 잡은 물고기를 팽개치고 예수를 따르는 근거가 거기에 있었겠구나, 생각이 머리를 채웠다. 다시 나에게로 돌아왔다. 나는 혹시 지금 잡힐 물고기만 기다리며 거기에 온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 건 아닌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새로운 초점, 관점, 세계관, 가치체계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하시며, 지금까지 바라보던 지점으로부터 지향을 바꾸라 하신다. 그러고는 말씀의 깨달음과 같이 따라오는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신다. 예수님의 말씀은 심플하다. 익숙한 프로세스... 처음으로 되돌아온 것 같은 기분에 약간 허탈했지만 그래도 진리는 단순한 것을 어찌란 말이나.

주님과의 만남. 지금까지 이런저런 모습으로, 알게 모르게 만났던, 여기 저기 흩어져 있던 주님의 기억들을 다 모아 봐야겠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렬도 해 보고, 주제에 따라 다시 모아 보기도 하며 재구성해 봐야겠다. 그때는 몰랐던 것들,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던 것들을 다시 조합해 봐야겠다.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이야기로 재구성할 때, 나를 만나주시며 주님이 던지시던 그의 미들을 더욱 분명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 튜닝해야 하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게 만나야 하지, 대면으로 만나야 하나 아니면 비대면으로... 비대면 고독 속에서? ㅎㅎㅎ

하기사 고독 속에서 주님과 연결되면 사방이 온통 줌(ZOOM)이니 걱정할 게 없다!

김중호 안수집사



2022 함글함글 신춘문예 | 간증부문 당선소감

글쓰기는 나 자신과 소통하는 창구

글쓰기는 일 년에 두 번,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말미에 한 번에 몰아서 쓴 일기 쓰기 숙제가 전부였다. 그 억지 일기 쓰기 숙제에서 해방되어 앞으로 영영 이별 이구나 하고 그렇게 지나나 싶었는데, 교회 복도 끝 모퉁이에서 마주친 목사님들의 은혜의(?) 강권으로 글쓰기는 근근이 이어졌다. 어린이날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를 시작으로 이런 저런 소모임의 후기와 감상문, 그리고 임마누엘 찬양대 소식지였던 '타'편집장의 협박 같은 통사정으로 생산된 여러 기고까지, 생각해보니 글쓰기는 나 자신과 소통하는 나만의 창구였다.



글을 쓰며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대상에 대하여 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성경을 좀 더 깊게 묵상하고 그 결과물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고민하며 현실의 삶에 비추어 적용해 보는 일련의 과정이었던 거 같다. 그러면서 내면을 좀 더 자세히 돌아보고 나 스스로와 대화하려 했고, 성경 속 텍스트의 자간과 행간을 읽어내고 소통하며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 했다.

모든 면에서 아직 많이 부족하여 밖으로 내보이기엔 부끄러워 머뭇거렸었는데, 이번에 용기내어 보았다. 성찰의 깊이가 얕고 성경에 단편하여 논리의 전개가 빈약한, 문학적 소양이 부재하여 문장이 투박하고 거친 글을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기쁘다.

김중호 안수집사

2022 함글함글 신춘문예 | 시 부문 당선소감

짧은 탄식, 울림 없는 기도마저 품어주시는 주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종종 하는 말이 '나는 날라리 신자이고 아직도 주님을 반신반의한다'고 하는 탕자를 주님께서 그럼에도 늘 지켜봐주시고, 또 이렇게 당신의 사랑을 주시니..., 참 민망하고, 참 죄송스럽고, 깊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연하게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딸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시를 썼고,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슬프다고, 힘들다고 하면서 일기처럼 종종 펜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가 가끔 메아리 없는 기도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을 진정 뵈고 싶다고 하면서, 단 1초라도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발버둥침이 서툰 시로 표현되기도 하였습니다.

저의 짧은 탄식과 울림 없는 기도는 졸시가 되었고, 그 졸시마저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힘내라고 상을 주시는 주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영광을 드립니다.

윤재민 성도

* 시부문 당선작은 함글함글 446호 12면에 게재

2022 함글함글 신춘문예 | 심사평

사유의 깊이를 보여주는 두 편의 당선작

두 번째를 맞은 2022년 함글함글 신춘문예의 응모자는 작년에 이어 9명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택근무에 익숙해지고, 외출과 대면 접촉이 줄어들면서 독서와 묵상, 내면을 향한 사색의 시간이 더 늘었을 것으로 짐작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일까.

이미 십여 년 전부터 근대문학이 사회에서 가졌던 역할이 감소하고 있다는 징후를 몇몇 평론가들이 지적해 온 바 있다. 변화하는 시대 안에서 상상력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떠맡았던 소설이 점점 그 역할을 잃어간다는 점에서 그런 징후를 발견했던 것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종교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읽혔다고 할 수 있는 문학작품인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그 자체로 가장 위대한 고전의 하나이다. 시공을 초월한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위대한 작품을 우리는 '고전'이라고 부른다. <성경>을 통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감응하고 본질적인 의미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유의 힘과 상상력의 한계를 최대한 확대하여야 할 터이다.

문학을 읽고 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을 이해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데 필요한 사유의 힘과 상상력을 키우는, 인류 역사와 함께해 온 오랜 훈련의 방식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인에게 문학은 읽고 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셈이다.

많지 않은 응모자 가운데에서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응모 편수나 원고량과 같은 응모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그 중 시 부문 2분과 간증 부문 2분이 예심을 통과하여 본심에 올랐고, 현역 문인과 함글함글 신춘문예 기존 당선자로 이루어진 본심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 시 부문에서는 윤재민 성도의 <광야>가, 간증 부문에서는 김중호 안수집사의 <만남의 재구성>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광야>는 익숙한 비유와 관습적인 상징에 머무르고 있는 다른 응모작과 달리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의 모순적 내면과 고뇌, 이해와 연민을 통해 고통과 은혜가 만나는 역설적 공간을 '광야'로 상징하는 빼어난 시적 세계를 보여주었다는 평을 받았다.

<만남의 재구성>은 코로나19로 진행된 비대면 구역모임의 과정에서 주님과 만남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사유한 기록이다. 흔히 '간증'을 '종교적 체험의 고백'으로 단순하게 이해하여 은혜받은 일화의 평면적 기록에 머무르는 경향이 없지 않은 가운데, 진솔한 성찰과 묵상의 과정을 가감 없이 보여주면서도 정교하게 직조된 종의적 표현으로 일정한 문학적 성취를 거두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함글함글 신춘문예에 당선된 두 분에게 소박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주님의교회 공동체라는 텃밭에 함글함글과 함께 문학의 씨를 함께 뿌리고 가꾸어나가는 동료로 되어 주실 것임에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함글함글

찬양대 찬양일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함줄함울에서 '찬양대 찬양일기'라는 제목으로 새해부터 각 부 찬양대의 글을 연재하기 시작하였고, 함줄함울 신년호에 실린 호산나 찬양대원의 글을 읽었습니다. '가사는 찬양의 몸'이라는 제목 하에,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더라도 가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마네킹에 옷만 입힌 것과 다름이 없다는 비유를 하면서, "교회음악의 중심은 가사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게 됩니다.

호산나 찬양대가 올해 첫 곡으로 부른 '선한 능력으로'는 본회퍼 목사님의 옥중서신에 곡을 입힌 것인데, 본회퍼 목사님은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하는 에베소서 5장 19절을 인용하면서, 찬송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 그리고 신앙고백과 기도의 말로 노래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곧 자기 자신에게나 음악 자체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하였습니다 <본회퍼, 성도의 공동생활>

찬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음악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3장 6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 권면이나, 시편 108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라는 고백 속에 찬양의 본질과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2월 6일 주일 2부에서는 송명희 시인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시인의 간증을 노래한 유명한 곡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음악적 기교나 완성도는 필요하고 노력해야 하지만, 이러한 것이 찬양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마음이 표현된 가사와 찬양대원이 표현하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느끼며 공감하기에, 이 찬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음악사에는 단성음악과 화성음악, 회중찬송과 찬양대찬송에 관한 논쟁, 가사에 성경말씀만 허용할 것인가 여부, 기악음악의 허용 여부, 예배에 있어서 찬양의 역할과 의미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마다 찬양에 관한 선호와 시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와 교파, 입장과 견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치하는 것 그리고 변함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시편 146편 2절) 즉, 나의 삶 속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은 음악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온의 찬양대원들은 평생 주님을 따르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과 각오로 매 주일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온 찬양대

교단소식

철저한 교육과 선교 사명의 기초되길

교단 기관지인 <한국기독교공보>(2022.2.7.)에 아동세례의 헌법해석에 관한 사설이 수록되어 전문을 인용합니다. 함줄함울

최근 아동세례로 인해 불거진 논란이 헌법해석으로 일단락됐다. 헌법 해석에 따르면, 아동세례는 부모의 세례 및 교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 개인의 신앙고백으로 세례를 줄 수 있으며 입교 절차도 거치지 않는다. 아동세례가 실시된 이후 지난 3개월간 제기된 논란이 일단락됨에 따라 교회 현장에선 아동세례를 통해 다음세대 교육과 선교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 교회 현장에선 아동세례의 취지를 잘 살려서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목회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 아동세례와 관련된 논란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교회 현장에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우선, 세례를 베풀기 앞서 아동세례교육이 보다 철저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아동세례교육은 아동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돕는 교육이다. 따라서 아동세례가 세례를 베푸는 것에 머물지 말고 철저한 사전 세례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아동세례교육이 아동세례 문답집을 만드는 차원을 넘어서서 아동세례교육 교재 발간을 비롯한 아동세례 예식서 제작과 부모 교육 강화 등의 교육 콘텐츠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세례가 다음세대들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 아동세례자는 자신의 신앙고백을 통해 능동적으로 신앙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또한 신앙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특히 7~12세 아동은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시기임을 감안할 때, 아동세례는 교육 목회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아동세례는 다음세대 선교와 교육 목회를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동세례는 아동이 자신의 신앙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표지행위이다. 따라서 교회 현장에선 다음세대를 위한 교육목회 차원에서 아동세례를 더욱 확산하는 일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

한국기독교공보

영화로 성경읽기

<오징어게임> 유희왕 회장님께

오일남 회장님, 벌써 새해가 밝았네요. 할아버지나 어르신으로 칭하기에 민망할 정도로 이승에서는 악명이 높아지셨습니다. 사후에는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바로 옆 사람이 토혈을 하며 나뒹굴 때도, 회색을 감추지 못하며 신나게 무궁화꽃 게임을 즐기셨으니, 극락정토에도 무사히 진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겨야만 하는 순간이 올 때

아, 저는 쌍문동의 성기훈이 아니라, 매 게임마다 낙오자의 길을 걷는 소심한 성정의 참가자입니다. 그래서 회장님의 재력과 실력을 하나님께 간절히 애원한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회장님의 유언에 대하여 여쭙고 싶은 내용이 많아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현자(賢者) 같았던 회장님의 정체는, 알고 보니 ‘불행한 부자’였습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는 허무의 늪에서 허우적대다가, 뇌종양 선고까지 받게 된 회장님의 처지는 참으로 딱해 보였습니다. 더욱이, 저급한 VIP들에게 잔인한 도륙의 현장을 유희로 제공하셨지요. 그렇지만, 이런 회장님께 어떻게 살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겠다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돈의 노예이셨던 회장님이셨기에, 회장님께서 장전하신 독한 쓴소리를 저도 듣고 싶습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대부호도 극빈자도 불행합니다. 그러나 회장님의 게임을 쫓 지켜보며 저는 과연 얼마나 벌어야 충분할까 또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목숨을 장기판의 말 따위로 여기는 VIP들, 궁지에 몰리면 살인도 불사하는 참가자들 사이에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결국, 부자도 가난한 자도 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VIP들이 보여준 비인간적인 광기(狂氣)와 게임 참가자들의 잔혹한 살기(殺氣)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종국에 회장님처럼 죽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막처럼 황폐한 여정으로 향하는 출입증임을 미리 알았더라도 참가자들은 모두 오징어 게임에 재도전했을 것입니다. “밖의 세상이 더 지옥”이었으니까요. 모두의 목숨값으로 획득한 일확천금을 선행의 씨앗으로 심어놓고, 딸과의 재회도 마다한 채, 부조리 타파를 위해 오징어 게임장으로 복귀하는 성기훈을 예수님에 비유하는 의견도 있더군요. 심지어 회장님을 성기훈의 아버지로 추측하는 항설(巷說)도 난무했었습니다. 그러나, 줄곧 반복되는 회장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끌었습니다. “보기만 하는 것이 직접 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을 순 없다.”

회장님, 회장님께 진정 보물이었던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축적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회장님 삶의 원동력은 신명과 충족감(=재미)이었습니다. 성취감에 몰두할 때만 느껴지지요. 하지만, 정신적 보물은 금은보화의 재물보다 더 치명적인 위험부담을 수반합니다. 확실하게 지키는 수단이 딱히 없는 정신적 가치는 쥐도 새도 모르게 도둑맞기 십상이니까요. 더욱이, 순간의 분위기를 타는 ‘희열’은 금은보화 장신구보다도 유효 기간이 짧습니다. 특히, 목표를 달성한 순간의 환희는, 시간과 세월의 순리가 순식간에 도둑질해갑니다. ‘도둑맞으면 어미 품도 들쳐 본다’는 속담을 아시지요? 충족감을 상실하여 공허

해진 ‘마음’을 회장님께서 애타게 채우고자 할수록 타인에 대한 번민은 심화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뒤흔드는 회장님의 질문이 일견 설득력을 갖는 이유이지요.

“정말... 아직도... 사람을... 믿나?”이 질문에 성기훈은 분노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최대 수혜자인 그가 오징어 게임을 절멸(絶滅)하려는 투사로 진일보하여 오징어 게임을 또 찾아가게 되지요. 그러나 회장님의 뒤통에 다시 걸려들었을 뿐입니다. (회장님의 뒤통은 게임의 우승자들을 향해서도 놓여져 있습니다. 프론트맨의 존재가 증명하지요.)

이러한 성기훈을 응대하시는 회장님의 통찰과 도량은 깊고 높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처럼 결코 경외심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하지요. 회장님을 지배하는 원칙이 파괴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시지만, 회장님께서는 염세적인 세계관을 어느 누구든 믿게 만들어 타락을 부추기는 견인차



역할을 상당히 즐기고 계십니다. 죽음·약육강식·이기심·빈곤에 대하여 인간이 극단적인 두려움을 느끼면 퇴폐적인 집승과 동일하게 이기심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공동체 의식의 절정을 보여주던 성기훈이 구슬치기 게임에서 궁지에 몰리자 살아남기 위해 거짓말을 하며, 회장님께 ‘역대급 희열’을 선물하지요. 그러나 구슬치기 게임에서 강

새벽을 위해 기꺼이 죽음도 불사한 지영에 대하여, 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회장님, 인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으신 예수님처럼, 인간은 짐승과 달리 소신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으며, 욕심을 부리다가도 배려의 미덕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생애 첫 친구, 강새벽을 위해 지영이 왜 산화했는지 논란이 분분하지만, 그녀가 강새벽에게 남긴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합니다. 오로지 목적 달성을 위해 줄곧 외톨이를 자처하던 강새벽이 지영의 희생 이후, 송기훈을 신뢰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자상으로 인한 과다 출혈로 사망 직전이던 강새벽은 게임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상우를 몰래 살상하려는 기훈을 저지합니다. 힘겹게 강새벽이 죽어가지만, 악의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앞서 제가 회장님을 ”누구보다도 돈의 노예로 사셨다“고 묘사했었습니다. 공평한 경쟁을 운운하며 확실한 물질적 대가를 보장하는 회장님의 오징어 게임은 절박한 심정의 참가자들을 ‘명줄마저도 인간에게 공평치 않다’며 우롱합니다. 그렇다면,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방향 감각으로 살아야 할까요? 회장님처럼 쌓여가는 재산만 믿으며 살아야 할까요?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이 넓은 세상에, 다양성에 물인정한 채, 낙엽처럼 누군가를 짓밟고 얻는 물질적 대가가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을 내가 술선수범하여 기꺼이 감당할 때, 비로소 인간의 허기진 자존감이 충족되는 것 같습니다. 참가자들이 오징어 게임에 빠져들수록 사이코패스로 돌변하는 모습과 VIP 구경꾼들의 저급한 언행에서, 게임의 우두머리인 회장님조차도 스스로를 짐승으로 비하하며 살아오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최약체 팀을 줄다리기 승자로 이끌었던 회장님의 필승법은 부럽지만,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회장님처럼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경쟁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하면, 회장님보다 마음도 부자이면서, 성취감의 결핍을 겪지 않으며 살 수 있을까요? 게임의 ‘법칙’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가자의 대다수가 승자일 수 있는 게임을 만들려면, 획득과 분배가 모두 이루어지는 법칙으로 게임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오로지 이기는 데만 열중하는 우를 범합니다. 우선 내가 많이 가진 후, 알아서 나누어 주겠다는 속셈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근시안을 단호하게 저지하십니다. 나의 승리를 위해 약체인 경쟁자부터 제거해야 하는 악순환의 연속일 뿐이니까요.

우리가 게임의 법칙을 만드는 직위에 등극하지는 못해도, 부당한 경쟁의 법칙(나누고자 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제거되는 회장님의 오징어 게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에 맹종하며, 패자를 부적응자로 몰아가는 패악의 동조자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회장님의 오징어 게임 방식을 지켜보면, 다수결 동의의 규칙,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한 팀이 되는 규칙만 선행해도, 무고한 희생자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벌어야 충분할까요. 돈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도구일 뿐입니다. 따라서, 돈 걱정을 할지 안 할지 여부는, 각 개인의 선택 사항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희망의 전인차가 되며, 집착하게 되면 살상(殺傷)의 무기로 돌변할 것입니다. 쌓여가는 재물이 이웃의 치유에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공동체에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서는 늘 물으십니다.

저 또한 돈에서 자유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평생 돈 걱정을 하며 살지라도,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바람직한 삶인지를 오징어 게임을 통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극단적인 VIP나 참가자들처럼 ‘돈만 있으면’의 차원이 아니라, 지켜야 할 원칙과 양심을 바라보며, 공동체의 협력 속에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세월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지고 공고해질 것입니다.

제가 선택의 길목에서 고민할 때, 죽음 직전에도, 인간에 대한 배신감을 짐짝처럼 짊어지고 가는 회장님의 측은한 모습을 기억하겠습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회장님께 하직 인사를 대신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잠언 19:17)

최혜선 성도 5교구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_ 잠언 19:17

**코로나 극복을 위한
777 특별기도**

하루에 3번(7시, 14시, 21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지역 사회,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교회

**코로나 극복을 위한
777 특별기도**

하루에 3번(7시, 14시, 21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지역 사회,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교회

**뷰티풀페어런팅센터
2022년 상반기 교육일정**

교육명	기간	시간	장소	강사	문의
해피맘스쿨	3/8 - 4/26	(화) 오후 1:00	현장, 온라인 병행	김운선 목사 010-4773-8186	
아름다운 부모학교	3/11-4/29	(금) 오후 8:00	현장, 온라인 병행	한시영 목사 010-8935-5048	
세움학당	3/12-11/5	(토) 오후 6:00	온라인 강의	이은미 전도사 010-2376-6561	
마더와이즈	3/20-5/22	(화) 오후 8:00	현장, 온라인 병행	정은영 목사 010-9592-0820	
파더와이즈	3/20-5/22	(화) 오후 8:00	현장, 온라인 병행	이상훈 목사 010-9808-4788	
센스큰나무	3/23-6/15	(수) 오전 10:30	현장 강의	이은미 전도사 010-2376-6561	
결혼예비학교	5/15-5/29	(주일) 오후 4:00	현장 강의	이지형 전도사 010-4817-0109	
자녀학복 새벽기도회	2/12 3/12 5/14 6/11	매일 둘째 주 (토) 오전 5:20	현장, 온라인 병행	김경민 전도사 010-7126-2712	

주님의교회

**다음세대를 세우는
주님의교회 세움학당**

마음이 평안 있을 아이에게 가장의 그리스도인 본어도 그것들 떠나지 아니하며, 온전하게
기다려 받

기간 3.12-5.28 (상반기) 9.17-11.5 (하반기)
시간 매주 토요일 6-8pm
대상 주님의교회 모든 성도
문의 이은미 전도사(010-2376-6561)

강사진

고원석 교수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김도일 교수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김화수 목사 주님의교회 담임목사
박상진 교수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신형섭 교수 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	이기준 목사 한국교육개발원
이상희 교수 장신대 목회상담학과	이상훈 목사 주님의교회 유망청년	이은미 전도사 주님의교회 유망청년
임경순 목사 주님의교회 유망청년	장순애 교수 영남신학대 기독교교육학과	황구민 목사 주님의교회 유망청년
정영택 목사 중앙총회장, 다녔던 대학	주선영 목사 전 모세골공동체교회 부목사	홍창근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주님의교회

**너나들이
예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10)

♥ 주일 | 오후 1시 ♥ 장소 | 3층 초등부실

주님의교회 모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교회

**2022 상반기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 하나님 나라와 선교

2.25(금) 7PM

중예배실
유튜브 실시간 방송 송출

시간	내용	담당자
19:00 ~ 19:15 (15')	찬양 및 감사목사 소개	장성식 전도사 박주영 목사
19:15 ~ 20:00 (45')	하나님 나라와 선교 I	서성환 목사
20:00 ~ 20:10 (10')	Break Time	
20:10 ~ 20:35 (25')	하나님 나라와 선교 II	서성환 목사
20:35 ~ 21:05 (30')	격려사 및 선교정책 방향 나눔	임인목사
21:05 ~ 21:10 (5')	광고 및 마무리	박주영 목사

주님의교회

**주님의교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생모집**

2022년 3월 17일~6월 9일 (매주 목요일)

대상 호스피스에 관심있는 모든 교우
교육방법 온라인교육
교육비 130,000원 (교재비 2만원 별도)
주님의교회 등록교인(본인부담 50,000원)
특전 교육 수료 후 200시간 봉사 시 소정의
시험 후 한국호스피스협회 인증서 발급
등록문의 김희수 부장 010-5302-3175
이부자 총무 010-3630-5955

How to Grow

2022 주님의교회 청소년을 온라인 겨울 수련회

너나 함께 성장하는
'10대' 그리스도인

2022년 2월 20일(주일) ~ 27일(주일)

교회일정

2/25(금)	상반기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3/2(수)	재의 수요일
	교구연합수요기도회(1교구 주관)

알립니다

1. 코로나 극복을 위한 7·7·7특별기도

하루에 3번(7시, 14시, 21시) 코로나 극복을 위해
지역 사회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2. 대예배실 내벽 흠늬 교체공사 안내

공사기간 : 1/10(월) ~ 3/10(목)까지

※ 주일에배만 대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새벽기도회, 수요일예배는 중예배실에서 드립니다.

3. 세움학당 제3기 모집

교육기간 : 3/12(토) ~ 11/5(토),

매주 토 오후 6:00~8:00, 총 20주(봄12주, 가을 8주)

모집기간 : 2/28(월)까지 / 등록비 : 5만원

교육장소 : 현장 및 온라인(1학기 ZOOM)

신청방법 : 구글신청서(홈페이지 모집 안내문 내
링크 게재)

문의 : 이은미 전도사(010,2376,6561)

함글함글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유정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집 : 홍보출판부

〈함글함글〉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글함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hamletter@daum.net

주님의교회

